

매일경제

2014. 8. 5.

국제갤러리(주)

그림이 있는 여름 노는 사람들 문성식作



오색 꽃이 만발한 푸른 숲 속에서 5명이 숨바꼭질을 한다. 놀이에 열중한다기 보다는 꽃과 나무에 숨어 자기만의 생각에 빠진 듯하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문성식(34)은 연필로 진심과 소박함을 전달하는 젊은 작가다. 종이에 구아슈연필, 29×25cm. 이향휘 기자